〈박세리〉

〈김미현〉

〈신지애〉

한국낭자군단 2주간 유럽 원정

26일 프랑스 에비앙마스터스
8월2일 브리티시 여자오픈
박세리·김미현 등 29명 출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올해 4승을 합작한 '코리언 시스터스'가 2주 동안 유럽 원정에 나선다.

26일(이하 한국시간) 프랑스 에비앙레뱅의 에비앙마스터스골프장(파72·6천192야드)에서 나흘 동안 열리는 에비앙마스터스에 이어 8월2일 스코틀랜드 세인트앤드루스에서 치러지는 시즌 마지막 메이저대회 브리티시여자오픈으로 이어지는 유럽 원정에서 '한국 군단'은 우선 '프랑스 원정 무승 징크스'에서 탈출이 급선무이다.

에비앙마스터스는 총상금 300만달러에 우승 상금이 45만달러에 이르러 메이저대회를 능가하는 특급 대회이다.

총상금은 US여자오픈 다음으로 많고 우승 상금은 US여자오픈(56만달러), HSBC매치플레이챔피언십(50만달러)에 이어 세번째다.

대회 출전 선수는 미국, 유럽, 한국, 일본, 남아공, 호주 등 골프 강국 상위랭커 위주로 선별해 90명으로 제한된다.

출전 선수가 78명에서 12명 더 늘어났고 지난 해까지 없던 컷오프가 올해부터 생겨 2라운드가 끝나면 예선 탈락자들이 나온다는 점이 달라졌다.

LPGA 투어에서 최강을 자랑하는 '코리언 시스터스'는 그러나 유독 이 대회 우승과 인연이 없었다.

올해 일정에 올라 있는 LPGA 투어대회 가운데 한국 선수가 우승을 차지하지 못한 대회는 마스터카드클래식, 코로나챔피언십, 다케후지클래식, 프랭클린모기지챔피언십, 그리고 에비앙마스터스 등 5개 뿐이다.

마스터카드클래식과 코로나챔피언십, 프랭클린모기지챔피언십 등이 창설된 지 3~4년에 불과한 사실을 감안하면 에비앙과 악연은 이제 끊어낼 때가 됐다는 지적이다.

에비앙마스터스골프장은 전장은 짧은 대신 코스의 굴곡이 심하고 그린이 조그맣다는 점에서 한국 골프장과 비슷해 한국 선수들이 이곳에서 한 번도 우승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전문가들도 의아하게 여기고 있다.

올해는 '에비앙 무승 징크스'를 깰 가능성이 높다. 우선 출전 선수 90명 가운데 32.2%에 이르는 29명의 '코리언 전사'들이 나선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가장 기대를 모으는 선수는 역시 맏언니 '듀오' 박세리(30·CJ)와 김미현(30·KTF)이 꼽힌다.

HSBC매치플레이챔피언십 제패로 사기가 올라 있는 이선화(21·CJ)와 김영(27), 장정(27·기업은행), 이미나(27·KTF), 이정연(28), 이지영(22·하이마트), 그리고 신예 돌풍의 주역 안젤라 박(19), 민나온(19), 김인경(19) 등도 무시못할 우승 후보들이다.

특히 눈여겨 봐야 할 선수는 한국여자프로골프의 '지존' 신지애(19·하이마트)다.

'기권소녀'로 전락한 위성미(18.미국 이름 미셸 위)의 투어 복귀도 눈길을 끈다. 최악의 시즌을 보내고 있는 위성미는 2005년과 지난해 이 대회에서 2년 연속 준우승을 차지하는 등 강세를 보였다.

로레나 오초아(멕시코),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 카리 웹(호주), 크리스티 커, 모건 프레셀, 폴라 크리머(이상 미국) 등 즐비한 강호들과 '코리언 시스터스'의 대결이 흥미진진할 전망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광주일보사 후원 제4회 벨인퍼컴 사장배 볼링대회 예선전이 23일 오후 광주시 북구 텐핀볼링장에서 열려 9명의 본선 진출자를 가렸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테니스 이형택 '꿩 먹고 알 먹고'

세계랭킹 30위권 진입 이어
삼성증권서 보너스 1억 지급

한국 테니스 선수로는 사상 처음으로 세계 30위권에 진입한 이형택(38위·삼성증권)이 소속팀으로부터 두둑한 보너스를 받을 전망이다.

이형택은 24일 남자프로테니스 홈페이지가 발표한 세계랭킹에서 지난주 42위에서 4계단 상승한 38위에 이름을 올렸다. 그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벌어진 ATP 투어 컨트리와이드 클래식에서 강호 마라트 사핀(22위·러시아)을 누르고 시즌 첫 4강에 오르며 투어 포인트 75점을 획득, 총 786점으로 독일의 플로리안 마이어(831점)의 뒤를 이어 38위에 포진했다. 한국 여자 선수 중에서는 이덕희가 1983년 47위까지 올랐고 조윤정(삼성증권)이 2003년 45위, 박성희가 1995년 57위까지 진출했지만 30위권에는 들지 못했다.

삼성증권은 이형택이 선수로는 하강곡선을 그릴 나이인 30대에 쟁쟁한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투어 대회에서 선전 중이고 한국인 최초로 세계 30위권에 진출한 점을 높이 사 내부 규정에 의거, 보너스를 지급할 예정이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는 함구했으나 보너스는 1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이인화씨 1위

벨인퍼컴 볼링 예선

이인화(36·광주시 서구)가 제4회 벨인퍼컴 사장배 남·여볼링대회 2차예선에서 1위를 기록했다.

이인화는 23일 오후 광주시 북구 텐핀볼링장에서 열린 예선전에서 합계 655점으로 1위로 예선을 통과했다. 또 조군호(50·광주시 광산구)가 2위, 정병완(50·광주시 북구), 엄기원(36·광주시 북구), 김경덕(35·광주시 서구)이 각각 3, 4, 5위로 예선을 통과했다.

여자부에서는 최상희(48·광주시 북구)가 합계 638점을 기록해 1위로 예선을 통과했으며 박형남(45·광주시 광산구)과 전맹자(41·광주시 북구)가 각각 2, 3위로 예선을 통과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스포츠 주개

25일(수)

▲MBC미디어텍 청소년골프 2R(13 : 00·MBC ESPN)

▲제59회 화랑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 8강전1(13 : 00·KBSN Sports), 8강전2(15 : 30·KBSN Sports)

▲세계여자비치발리볼(14 : 50·KBS2)

▲일본 프로야구〈요미우리-요코하마〉(17 : 50·SBS스포츠)

▲프로야구〈롯데-KIA〉(18 : 20·KBSN Sports), 〈두산-삼성〉(18 : 30·MBC ESPN)

▲아시안컵 2007 준결승〈한국-이라크〉(19 : 05·SBS스포츠, 19 : 10·KBS2, X-ports), 〈일본-사우디〉(22 : 10·SBS스포츠, Xports)

LPGA HSBC 우승 이선화 세계랭킹 18위

23일(이하 한국시간) 끝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HSBC 매치플레이챔피언십에서 우승한 이선화(21·CJ)가 세계 랭킹을 무려 10계단이나 끌어올렸다.

이선화는 24일 발표된 주간 여자프로골프 세계랭킹에서 지난 주 28위에서 18위로 수직 상승했다.

이 대회에서 3위를 한 김미현(30·KTF) 역시 9위로 1계단 올라섰고 박세리(30·CJ)는 1계단 내려선 6위가 됐다.

결승에서 이선화에게 패한 미야자토 아이(일본)는 2계단 오른 10위에 올랐다.

제136회 브리티시오픈에서 공동 8위로 역대 한국인 최고 성적을 낸 최경주(37·나이키골프)는 12위로 변동이 없었고 첫 메이저 우승의 감격을 누린 파드리그 해링턴(아일랜드)은 10위에서 6위로 점프했다.

연장 패배로 준우승에 그친 세르히오 가르시아(스페인) 역시 13위에서 8위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세계 복싱챔프 지인진
종합격투기 진출키로

한국에서 유일한 세계 복싱 챔피언인 지인진(34·대원체)이 종합격투기 K-1에 진출한다.

K-1 주최사 FEG 한국지사의 양명규 프로모터는 24일 "지인진과 격투기 진출에 관한 의사 교환은 끝낸 상태다. 계약 조건에 대한 합의도 이미 마쳤다"고 밝혔다.

양 프로모터는 이어 "서로 계약서에 사인을 하지는 않았지만 지인진이 복싱과 관련한 주변 정리를 빨리 한다면 이번 주 내로 계약을 마무리 지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K-1은 지난 해 말 로돌포 로페스(23·멕시코)를 꺾고 세계복싱평의회(WBC) 페더급 정상에 오른 지인진을 영업할 경우 장기간 조건으로 세계 챔피언에 걸맞은 대우를 해줄 계획이다.